



## 연합뉴스 총파업 돌입

### ‘언론사로서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언론계엔 큰 도약의 발자국’



는 응원 메시지와 어색하게 결합해 묘한 웃음을 유발했다. 일각에선 ‘특파원의 방송업무 과다에 따른 산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정영하 MBC노조 본부장, 김현석 KBS노조 본부장, 김종욱 YTN노조 지부장 등도 출정식에 참석해 역사적인 연합뉴스 노조의 총파업을 축하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론직필’의 대표적인 언론인인 송건호·이영희 선생이 기자생활을 연합뉴스에서 시작했음을 거론하면서 이번 파업으로 연합뉴스가 공정보도를 위한 기반을 세울 수 있기를 기원했다.

연합뉴스 조합원들은 출정식 후 7층 임원실 앞 복도에서 박정찬 사장에게 연임 반대의 뜻을 전달하는 항의 시위를 했다. 이어 서울광장에서 열린 ‘언론4사 파업 사랑의 스튜디오’에 참여해 연대투쟁의 모습도 보였다.

저녁을 먹으며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선 주로 지역취재본부에서 발언했다. 지역본부에선 정권 편향적인 보도가 공정보도의 핵심으로 다뤄지는 본사와 달리 광고 업무로 인해 기사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현실을 전달했다.

이번에 새롭게 노조에 가입한 콘텐츠 센터의 조합원들은 연합뉴스에 속하면서 뉴스와이

일을 하는 데에서 오는 서러움, 사장의 막무가내식 지시 등 그동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담담한 어조로 전해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앞서 성기홍 조합원을 비롯한 특파원 27명은 총파업 동참 성명을 내 파업 열기를 더했다.

특파원 조합원들은 성명에서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특파원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경영진에 분명히 전하고자 함입니다”며 “노조 집행부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파업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행동을 통일하고 흔들림없는 단일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이틀째인 16일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한 교수는 두 시간 남짓 언론의 투쟁사를 전했다.

오후엔 본격적인 점거투쟁을 진행했다. 그동안 7층 임원실 바깥 엘리베이터 앞과 복도에서 시위했다면 이날 유리문 안쪽까지 조합원 150여명이 ‘진격’했다.

이 과정에서 사장 비서인 정운섭 전(前) 조합원이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겠다’라며 유리문 안쪽 진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해 정 전 조합원이 처한 안타까운 입장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점거투쟁 후 조합원들은 5층 편집국과 보도국을 돌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이후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파업 콘서트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노동조합이 드디어 총파업에 나섰다.

연합뉴스 노조는 15일 오후 2시 본사 앞 한빛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23년간 전인미답이었던 길을 가고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31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출정식에 참여해 연합뉴스 노조의 단결력을 또 한 번 과시했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39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직급상 자리를 지킨 고참 선배들을 제외하고선 거의 다 참여한 셈이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 박 사장의 재임 3년 동안 공정보도, 국민신뢰, 사내 민주주의, 합리적 인사, 근무여건 등 모든 걸 잃었다”고 파업투쟁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날 멕시코 양정우 특파원이 보낸 녹음파일이 조합원에 ‘빅 재미’를 안겨주기도 했다. 다소 경직된 방송용 말투가 “다부진 각오로 박 사장 연임 반대를 위해 싸우는 조합원들의 싸움에 박수를 보낸다”

## SNS에서 ‘여론전’ 개시

연합뉴스 노조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전을 시작했다.

노조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는 파업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전 40여명에 불과했지만, 홍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18일에는 2천700명에 육박했다.

‘연합뉴스가 사죄드립니다’ 영상은 유튜브 연합노조 채널에 올린 뒤 4천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합 노조 트위터 계정에 팔로잉하는 분들에게는 감사 인사와 함께 사죄 영상 URL이 답글로 가도록 설정됐다.

또 연합뉴스 노조는 페이스북 팬페이지지도 개설

해 파업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 노조는 투쟁 소식을 영상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특이 조합원들의 스토리와 재치를 담은 영상, 조합원 아이들의 ‘아빠, 엄마 응원’ 영상, 특파원들이 전하는 릴레이 응원 영상, 지방국 조합원들이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릴레이 응원 영상 등이 제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노조는 박정찬 사장의 연임 저지 등을 통한 공정보도 회복이라는 파업의 대의를 전하면서, 한국 언론계에서 연합뉴스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돼 ‘연합뉴스바로세우기’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나가겠다.

# “언론항쟁 종결자 떴다” 격려 봇물

노조가 23년만의 역사적인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공정정보를 사수하기 위한 이번 투쟁에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불과 3주 전 연가투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냉소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불공정보도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며 ‘대국민 사죄’에 나선 뒤 이번 투쟁의 대의에 시민들이 점차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노조의 파업 소식에 시민들은 ‘언론사 파업 종결자’로서 가열찬 투쟁에 나서 주기를 기대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명칭해보일 정도로 착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연합뉴스 조합원들의 파업이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누리꾼 ‘gemmadolls’는 트위터에 “착하디 착한 연합뉴스 기자들도 어제부터 파업했답니다. 헐”이라고 적었고 ‘decalage24’는 “연합뉴스도 괴로웠구나. 파업 같은 거 평생 안 할 회사라고 생각했는데”라고 썼다.

“새로 태어나기 위한 고통의 몸부림... 응원합니다”(lpiata), “힘내라! 국민이 당신들 편이다. 반성하는 당신들이 아름답다”(hoodman55), “추카 드립너더 꼭 성공을...훗팅”(duho\_ko), “격하게 지지합니다”(Noonebehind), “공정언론을 위하여! 쫄지마!”(yj0721a) 등 불공정 보도 사례를 되짚으며 자기반성에 나선 노조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각계의 유명 인사들도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힘을 보태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연합뉴스가 23년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정찬 사장 하에서 얻게 된 ‘연합 짜라시’라는 오명을 씻고 공정언론으로 자리잡기 위함입니다.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라고 성원했다. 40만 팔로어를 거느린 소설가 공지영씨는 노조 트위터를 팔로우하면서 “연합뉴스 힘내세요 꼭 승리하시고 다시는 우리 실망시키면 안되요”라고 적었다.

언론계 동지들도 이번 투쟁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시했다. MBC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서 “착하고 명칭했던’ 연합기자들도 한국언론 바로세우기 위해 나섰다. 언론사 파업종결자 연합 떴으니... 이제 다 죽어쓰”라고 썼고 시사IN 고재열 기자는 “연합뉴스가 국민의 통신사로 거듭나기 위해 파업 중

입니다. 연합뉴스 기자들을 응원합니다”라는 트윗을 날렸다. YTN 노조도 “언론사 파업의 끝판왕, 연합의 파업을 지지합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방송 3사를 비롯한 공영 언론사들이 일제히 공정정보를 위한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다. 아이디 ‘goellee’는 “연합뉴스가 짜라시면 그 뉴스를 공급받

는 대부분의 매체도 짜리시가 됩니다. 가카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연합뉴스 파업을 지지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목희 전 의원은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마저 파업하면서 언론사 연대파업이 클라이맥스를 맞고 있습니다...밑에서부터의 언론 개혁에 힘을 실어줍시다”라며 응원했다.

## 파업생활지침-일명 파업십계명

※일밖에 모르는 연합뉴스 조합원들이 갑작스런 파업으로 인해 생활리듬이 깨질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쟁위대책위원회에서 생활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파업십계명’은 권혁창 조합원이 수고했다.

###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1. 무조건 긍정의 힘을 믿고 절대 비관하지 않는다. “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중얼거린다.
2. 평소 시간이 없어 못했던 일을 하자. 열심히 책도 읽고 틈나는대로 영화도..물론 영화관도 좋지 만 노조 사무실에 가면 공짜 DVD가 산더미. 아 파업에도 이렇게 좋은 게 있을 줄이야..

### ▲건강은 개인무기

3. 술 좋지. 파업하면 근처 술집 매상 엄청 오른다던데...동지들과 연대하라, 비참가자 설득하라, 오 늘은 집회 끝나고 뒷풀이로, 내일은 강 땀겨서, 그러나 술로 건강을 잃으면 결국 투쟁 동력 상실..연타는 자제하고, 폭탄주도 제조에 운용의 미를.
4. 회사 가는 길 평소때보다 여유있다. 한두 정거장쯤 미리 내려 걸어볼까. 걸으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정리도 하고..아 파업은 나에게 건강유지와 명상의 기회까지. 우훗!

### ▲자유롭게, 그러나 널브러지지 않는다

5. 아침에 일어나면 투쟁속보에 귀를 쫑긋. 게시

판 보기와 메일체크는 기본. 나아가 시간 될때마다 게시판에 글쓰기도. 스스로도 놀란다. “내가 이런 글을 쓰다니..”

6. 세상 돌아가는 건 당근 알아야..언론인이 신문.방송 보기를 게을리해선 안되지. 올바른 정세 판단이야말로 승리의 밑거름.

### ▲나도 이젠 홍보맨

7. 홍보전의 중요성을 아는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우리의 강고한 파업의지를알리고,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각종 포털 사이트에 글쓰기, 댓글달기 등 할 수있는건 모두 다한다.

### ▲장기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돈

8. 밥 약속은 가급적 부장 등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선배들과..최대한 배껴먹는다. 미안해할 필요 절대 없다. 선배들은 월급 다 나오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나온다.

### ▲가족들 챙길 절호의 기회

9. 꿈긴 월급. 살림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 마눌림. 돈드는 외식하자고도 못하고. 대신 설거지, 취사 회수라도 늘려야..
10. 아침에 눈뜨고 누워서 “애들은 학교갔나?” 묻지말고. 이 기회에 아이 손잡고 학교까지 한번 데려다주는 건 어떨까. 바쁜 기자생활. 기회는 이때다. 이런 구호는 어떤가. “평소못한 가족사랑, 파업으로 챙겨보자!! 공정 보도 쟁취 투쟁!!”

